

「厭世詩家와 女性」論

-에머슨의 「LOVE」(「戀愛」)의 受容을 中心으로-

李 淙 煥*

(e-mail: jhwlee@knu.ac.kr)

目 次

序論: 「厭世詩家와 女性」의 執筆動機 및 背景

第一: 明治初年代(1870-80年代)의 日本人의 女性觀과 戀愛觀

第二: 에머슨의 「LOVE」(「戀愛」)

第三: 「厭世詩家와 女性」의 兩文學像인 「想世界」와 「美世界」의 原拠
- 「꽃봉오리 같은 시절」(蕾のころ)과 「어른의 세계」(大人の世界)

第四: 에머슨과 透谷 兩者의 戀愛觀과 結婚觀의 比較

結論: 에머슨의 「樂天主義」的 戀愛觀과 透谷의 「厭世主義」的 戀愛觀

序論: 「厭世詩家와 女性」의 執筆動機 및 背景

「厭世詩家와 女性」은 1892年(明治25年) 2月 6日과 20日 두 번에 걸쳐서 「女學雜誌」에 發表되었다. 이 當時 北村 透谷(기타무라 도코쿠)의 나이는 23歲였다. 그해 1月 15日 그의 日記에 依하면 透谷은 「이제부터 바야흐로 문단에 뛰어들 생각뿐이다」라고 決意한다. 이 評論의 原稿를 가지고 巖本善治(이와모토 요시하루)를 訪問했다. 善治는 곧바로 이 원고를 자신이 主宰하는 「女學雜誌」에 掲載하였다. 透谷은 이와 同時에 이 잡지의 文學 評論 蘭을 担当해 달라는 依頼를 받았다.

「厭世詩家와 女性」은 透谷에게 있어서 評壇에 오른 첫 번째 作品이 되었다. 以後 透谷은 旺盛한 創作 意慾으로 1893年 가을까지 붓물 터진 듯한 情熱로써 계속해서 評論을 써내려간다. 이때 그는 「人世を相渉るとは何の謂ぞ」(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

* 慶北大学校 日語日文學科 教授

일까, 「内部生命論」(내부생명론), 「万物の声と詩人」(만물의 소리와 시인), 「徳川氏時代の平民的理想」(도쿠가와씨 시대의 평민적 이상), 「明治文学管見」(메이지문학관견) 등으로 文學을 本質적으로 把握함과 同時に 文學史를 叙述하는데에 着手한다.

「厭世詩家와 女性」의 첫머리는 다음과 같다.

恋愛は人世の秘鑰なり。恋愛ありて後人世あり、恋愛を描き去りたらしむには人生何の色味があらむ。
戀愛란 인생이라는 비밀을 푸는 열쇠이다. 戀愛가 있고서야 비로소 참다운 인생이 있다. 戀愛를 생각하지 않고서 어찌 인생의 참맛을 느낄 수 있으랴.

이 序頭는 이와 같은 戀愛至上主義로부터 시작된다. 이어서 透谷는 「厭世詩家」를 다음과 같이 단정 짓고 있다. 「오히려 그 정이 많음(濃情)이 보통사람의 몇 배나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화합하여 일생을 보내는 자 그 수가 극히 적은 것」이다. 이러한 「厭世詩家」에 있어서 戀愛가 가지는 意味 그리고 그 結婚觀 내지는 女性觀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厭世詩家」가 보통 사람보다도 더 「戀愛」에 대한 熱情이 남다른 理由. 둘째 「여성으로 하여금 詩家の 妻가 되는 것을 경계한다」(女性をして嫁して詩家の妻となるを戒める)는 理由.

以上과 같이 評論 「厭世詩家와 女性」은 많은 先學者들이 指摘한 것 같이, 前半에는 「戀愛」에 대한 熱烈한 讚美가, 後半에는 婚姻에 대한 幻滅과 戀愛의 葬送曲이 각각 주된 課題로서 記述되어 있다. 즉 전체적으로는 「戀愛」가 갖는 根本적인 矛盾으로 因하여 마치 主題가 分裂되어 있는 것 같이 여겨진다. 「厭世詩家와 女性」의 주제와 관련시켰을 때, 일찍이 吉本隆明(요시모토 다카야키) 氏가 「日本近代詩の原流」(일본 근대시의 원류)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¹⁾

이 評論의 基底에 흐르고 있는 美那子와의 戀愛와 결혼의 체험, 그리고 鴉片當시의 透谷가 1892년에 작품 활동을 하는 가운데 가장 固着한 것이 바로 「戀愛」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透谷는 自由民權運動으로부터 離脱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해서 생긴 鬱狀態, 美那子와의 戀愛를 成就함으로써 그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곧 이은 결혼 生活은 바로 社会的束縛이며, 그는 곧 実生活에서 비릇된 번거로움으로 둘러싸이게 된다. 이리하여 透谷는 어떻게 해서든 戀愛의 自然性, 純粹性에 집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透谷에게 있어서 女性이야말로 秩序와 束縛의 代弁者인 同時に, 秩序 그 自体의 象徴이다. 그리고 戀愛야말로 「想世界」의 敗將이 편하게 쉴 수 있는 牙城이다. 이리하여 「実世界」로 되돌아가서 살아가려는 慾望을 일으킨다. 透谷는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1) 吉本隆明. 『吉本隆明全著作集5』所収 「日本近代詩の原流」, p.81

平岡敏夫(히라오카 도시오) 氏は 윗글의 前半部인 戀愛至上主義를 인용하면서 「戀愛의 自然性 純粹性」을 「戀愛 記憶의 再生産」과 關聯시키고 있다.²⁾ 위의 「1892년에 作品活動」이라는 것은 戯曲 「蓬萊曲」(1891年 5月)을 가리킨다. 美那子와의 結婚이 가지는 意味와 結婚生活에 의한 戀愛의 喪失에 이르기까지의 過程을 叙述한 부분이 「厭世詩家와 女性」의 내용과 같다. 그리고 그 期間 동안 크게 흔들리고 있는 透谷의 마음 이 잘 表現되어 있다. 결국 結婚生活이란 옛날에 지냈던 「戀愛의 自然성, 순수성」을 잃어가는 過程이다. 이리하여 옛날의 斬新한 追憶을 잃지 않으려는 努力이 「戀愛 記憶의 再生産」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때문에 「戀愛의 새로운 발견」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그 相対는 美那子가 아니라 弟子인 富井松子(도미이 마쓰코)였던 것이다.

透谷는 松子와의 戀愛를 媒介로 하여 以前에 있었던 美那子와의 「戀愛 記憶의 再生産」을 되찾으려 한다. 이 時點에 이르러 透谷에게 있어서 美那子와의 「戀愛 記憶의 再生産」은 觀念的, 抽象的인 것이다. 이 평론의 첫 부분에서 「戀愛」가 가지는 根本的 矛盾, 즉 「戀愛」의 「宣言」(マニフェスト)임과 동시에 「장송곡」(葬送曲)이라는 相反된 構想의 裏面에는, 美那子와의 결혼생활에서 비롯된 幻滅과 松子와의 플라토닉한 감정 이 더블이미지(double image)화 되어서 透谷의 意識 속에서 作用하고 있다.

笹淵友一氏は 松子는 透谷가 精神的 友愛를 기울였던 제자(敎之子)였다고 말하고 있다.³⁾ 그러나 두 사람은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될 關係였다. 결국 두 사람의 關係는 結婚에 다다르지 못하고 「悲恋」의 형태로 끝나고 만다. 이 「悲恋」은 「狂愛」로 增幅되어 展開되어 간다. 이러한 透谷의 「狂愛」에 관해서는 다음 機會에 言及하기로 하겠다.

지금껏 「厭世詩家와 女性」의 執筆 動機 및 그 前後 事情에 關하여 叙述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吉本隆明氏가 앞에서 지적하듯이 이 評論의 基底에는 美那子와의 戀愛時節에 엿볼 수 있었던 戀愛의 讚美와 結婚生活에서 겪었던 「厭世思想」이 이 評論의 基底에 흐르고 있다. 이러한 透谷의 의도를 살펴보면 즉 과거의 아름다웠던 戀愛讚美를 다시 謳歌하려는 소위 「戀愛 記憶의 再生産」이 그에게는 切實한 問題로 登場하게 되었다. 이것이 곧 「厭世詩家와 女性」을 執筆 할 當時 즉 1892年頃에 透谷가 「戀愛」에 固着할 수밖에 없던 그 背景이었다.

透谷는 자살하기 바로 前月인 1894年 4월에 評伝 「에머슨」을 刊行했다. 따라서 評伝 「에머슨」은 그의 遺作에 해당된다. 그 序頭에 「에머슨은 무릇 그를 숭배하는 자의 에머슨이다. 나는 그 중의 한 사람일 뿐」(エマルソンは凡て彼を崇拜する者のエマルソンなり)。余は其中の一人なるのみ이라고 되어있다. 透谷가 思想的으로 가장 影響을 받은 사람이 에머슨임을 그 스스로가 밝히고 있다.

에머슨(Emerson, Ralph Waldo : 1803~1882年)은 美国의 哲學者이며 詩人이다. 처음

2) 平岡敏夫, 『続北村透谷研究』, 「透谷その『戀愛』の行方」, 1971年, p.119

3) 笹淵友一, 『文学界とその時代 上』, 「北村透谷」, 1950年, p.68

에 聖職에 있었지만 教会와 衝突하고 1835年 以来 뉴햄프셔 주의 콩코드에 居住하였다. 이리하여 '콩코드의 哲學者'로 불린다. 그의 社會觀은 貧者를 擁護했으며 美國의 黑人 奴隸制度를 反對했다.

透谷의 作品 중에 처음으로 「에머슨」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厭世詩家와 女性」이다. 따라서 透谷가 에머슨을 접하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厭世詩家와 女性」을 집필하기 以前 즉 1892年 1月 以前의 일이라고 推定되어진다. 따라서 「厭世詩家와 女性」은 透谷에 있어서 에머슨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진 첫 作品이라고 할 수 있다.

以上の 觀點에서 알 수 있듯이 透谷가 執筆 한 「厭世詩家와 女性」은 에머슨의 「LOVE」(「戀愛」)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에머슨의 작품인 「사랑」을 透谷가 어떻게 受容하고 있는가. 이를 分析해 봄으로서 「厭世詩家와 女性」에 그려져 있는 透谷의 戀愛觀을 總體的으로 把握해 보고 싶다. 여기에 本稿의 主된 目的이 있다.

本稿의 進行은 主로 다음과 같다. 「厭世詩家와 女性」의 執筆 動機 및 그 背景. 透谷와 에머슨과의 만남. 明治初年代의 日本人의 女性觀과 戀愛觀 「想世界」와 「実世界」의 原拠. 에머슨의 戀愛觀과 透谷의 戀愛觀의 比較 等の 順序이다. 論의 展開는 무엇보다도 本文을 解釈하는 데에 重点을 두면서 進行해 나가겠다.

第一： 明治初年代의 日本人의 女性觀과 戀愛觀

- 「戀愛란 인생이라는 비밀을 푸는 열쇠이다.」(恋愛は人世の秘鑰なり).-

「厭世詩家와 女性」이 發表된 時代가 아직 封建的殘滓가 強하게 남아있던 時代였다. 따라서 이러한 戀愛至上主義의 宣言에 該當하는 한 句節은 그 당시 青年들에게 크나큰 波紋을 던졌다. 島崎藤村(시마자키 도손)은 小説 「桜の实の熟する時」(벚꽃나무 열매가 익을 무렵 1919年 1月)에서 「厭世詩家와 女性」을 처음 접했을 때의 感動을 다음과 같이 披瀝하고 있다.

이토록 大膽(大胆)하게 말한 청년(青年)이 이제까지 있었던가. 적어도 자신들이 말하려 했지만 아직까지 말하지 못했던 것을 이토록 大膽하게 말한 사람이 있었던가. 스테기치(捨吉)는 먼저 이 문장에 숨겨진 강한 힘에 끌렸다. 그의 버릇(癖)인양 마치 전기에라도 닿은 듯이 깊고도 그윽하게 몸서리(電氣にでも触れるやうな深い幽かな身震ひ)가 그의 몸 속 깊이 스며들었다.⁴⁾

4) 島崎藤村. 「桜の实の熟する時」, 1919年 1月

그리고 바로 이 時期에 青年期를 보낸 木下尚江(기노시타 나오에)는 後年에 다음과 같이 回想하고 있다.

이 한 구절은 마치 대포로 한방 맞은 듯 한 느낌을 가져다 준다(この一句はまさに大砲をぶちこまれた様なものであつた). 이처럼 진지하게도 적절하게 戀愛를 표현한 말은 일본에서 최초(我國最初)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전까지의 戀愛-男女間의 일은 웬지 어딘가 불결한 것(なにか汚いもの)으로 여겨져 왔다. 그것을 이토록 明快하게 喝破(갈파 : 잘못을 바로잡고 진리를 말하여 밝힘)한 적은 없었다.⁵⁾

封建的 女性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던 當時에 있어서 이 句節은 확실히 青天霹靂과도 같은 것이었다. 透谷의 戀愛觀의 意義는 당시에 澎湃해 있던 封建的 人間觀·倫理觀에 對抗하여 思想的인 革命을 鼓吹시키는 데에 一翼을 担当한 점에 있다. 바꿔 말하면 당시의 青年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그 과문을 던져준 것은 透谷가 지니고 있는 「戀愛」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社會位相의 面 가운데에서 그 一面에 지나지 않는다.

以下 1892年 「厭世詩家와 女性」이 執筆 되기까지의 日本人의 女性觀 내지는 戀愛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先驅者 透谷으로서도 새로운 戀愛觀이 간단히 形成되어진 것은 아니다. 透谷가 활약한 明治時代의 前代는 江戸時代부터 慣習적으로 내려온 男尊女卑 制度가 社會 全般에 널리 投影되어져 있었다. 當時 社會의 特色은 오늘날과 같은 一夫一妻制가 아니고 蓄妾制度나 遊里制度가 公認되어져 있었다. 이러한 社會 風潮 속에서 當時의 독특한 男女間의 愛情을 나타내는 美學으로서 好色이 澎湃하기도 했다.

明治維新이라는 새로운 時代를 맞이하여 西洋으로부터 近代的 戀愛라는 新思潮가 물밀듯이 다가온다. 이러한 近代的 戀愛의 思想的 背景이 된 것은 西洋의 그리스도교였다. 神앞에 모든 人間은 平等하다는 西歐의 浪漫主義가 그 思想的 支柱가 되었다. 이리하여 「戀愛」라는 新造語가 태어나게 되었다. 「戀愛」라는 單語가 日本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1874年(明治7年)에 출간된 『英和辭書』이다. 이것은 이미 平岡敏夫氏에 의해 指摘된 바가 있다.⁶⁾ 1887年版 『仏和辭林』에는 “Amour”를 「戀愛. 種愛. 好愛. 愛. 愛セラルル所の者」라고 翻譯되어있다.⁷⁾

巖本善治는 「女學雜誌」(1890年 10月)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日本の男子が女性に恋愛するはホンノ皮肉の外にて、深く魂(ソウル)より愛するなどの事なく、随つてかかる文字を最も嚴肅に使用したる遺傳少なし.

日本 男子가 女性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이지 가죽과 살에 지나지 않으며, 깊이 魂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옛 부터 사랑이라는 文字를 진지하게 사용한 예는 적다.⁸⁾

5) 木下尚江. 「福沢諭吉と北村透谷」-思想上の二大恩人-, 「明治文学研究」, 1934年 2月.

6) 平岡敏夫, 『北村透谷研究』, 「我牢獄」, p.170.

7) 『翻譯語成立事情』, 1982年, 岩波新書.

8) 巖本善治. 「女學雜誌」. 1890년 10월

善治에 이어서 같은 雜誌에서 山路愛山(아마지 아이잔)은 「戀愛의 철학」(恋愛の哲学)(1890년 11월)을, 그리고 徳富蘇峰(도쿠도미 소호)는 「국민의 벗」(國民之友)에서 「非戀愛」(1891년 7월)를 각각 發表했다. 善治는 이것에 應戰하여 1891년 8월, 「戀愛란 무엇인가」(非戀愛を非とす)를 發表했다.

福沢諭吉(후쿠자와 유키치)는 「日本夫人論」(1885年), 植木枝盛(우에키 에모리)는 「男女의 同權」(男女의 同權 1888年)에서 각각 透谷보다 먼저 婦人問題를 社會問題와 聯関 지어 論하고 있다. 福沢는 女性의 「춘정을 만족」(春情の満足)시키고, 「춘정을 달래고」(春情を慰る), 「정감을 키우는」(情感を養う), 즉 성의 개방(性の開放)을 主張하고 있다. 또한 婚姻의 權利平等과 女性에게 있어서 再婚의 自由·權利는 「인간세계의 자유쾌락은 남녀공유」(人間世界の自由快樂は男女共有)하는 것이라고 呼訴하고 있다. 植木는 婦人參政權을 강도 높게 주장함과 동시에 女性側의 恣意性을 認定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独自の 見解라고 할 수 있다. 自由平等이라는 觀點에서 볼 때 그들이 主張하는 男女同權論은 重要な 意味를 가진다.

福沢諭吉 中村正直(나카무라 마사나오) 등과 함께 「明六社」를 設立한 西周(니시 아마네)는 「明六雜誌」에 「情慾論」(1885年)을 발표했다. 西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情欲ハ吾人天賦ノ尤重切ナル者ニシテ吾人ノ因テ以テ生存スル所以ナリ、若夫レ吾人ノ性中情欲ヲ欠ク時ハ人類何ニ由テ生々蕃植スルコトヲ得ンヤ。

정욕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간은 이것에 의해서 생존하는 바이다. 만약 우리의 性 중에서 情慾이 없으면 人類는 어떻게 끊임없이 子孫을 繁殖할 수 있겠는가

이같이 그는 「정욕의 천부」(情欲の天賦)·「정욕의 자연」(情慾の自然)을 主張하면서 啓蒙活動에도 한 몫을 担当했다. 그리고 山口鼎軒(마구치 데이켄)은 「婦人に 관한 新語」(婦人に関する新語)(1892年 5月-6月, 「東京經濟雜誌」)에서, 「남녀동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男女同權ならざるべからず) 「남존여비가 대체 무슨 말인가」(男尊女卑とは何ぞや)라고 呼訴하였다. 여기서 男女同權이 그 當時의 社會問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以上과 같이 明治初年代(1870-80年代)는 아직까지도 前代의 封建的 잔재가 澎湃한 時代였다. 이러한 社會 雰囲気 속에서 새로운 自由의 물결인 西歐의 思想으로 武装한 近代의 戀愛가 胎動하기 시작했다. 先驅者 透谷의 「厭世詩家와 女性」은 이러한 時代的 狀況下에서 태어났다.

第二: 「에머슨」의 「LOVE」(「戀愛」)

透谷가 翻譯 한 「에머슨」은 7章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랑」이라는 별도의 章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透谷 자신은 「에머슨」의 「제7 그의 실제교」(其七 彼の實際教) 중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彼は愛情(ラブ)を論ずるにありても、プラトニック・ラブの原則より演繹して、高尚なる思求より発するを論じ.

그는 애정을 논하는 데 있어서도 플라토닉 러브의 원칙을 연역해서 고상한 사구에서 생겨난 것을 논하여

여기에 에머슨의 「LOVE」(「戀愛」)이 拳論되어 있다. 이것을 보아 透谷가 에머슨의 評論 「사랑」을 읽은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厭世詩家와 女性」속에 에머슨의 이름이 2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引用되어져 있다.

에머슨이 말한 적이 있다. 가장 냉담한 철학자(冷淡なる哲学者)라 해도, 戀愛의 맹렬한 기세(戀愛の猛勢)에 쫓겨 여기저기 정처 없이 돌아다니던(逍遙徘徊せし) 少年시절, 그 영혼이 진 빛을 갈을 수 없다. - 라고

혼인과 죽음이란, 자국의 언어를 겨우 구사하기 시작하는 유아(幼兒)로부터 무덤(墳墓)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항상 입에 담는 말이다. 이것은 에머슨의 지당한 말이다.

吉田精一(요시다 세이치) 氏의 指摘에 依하면, 後者の 訳文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原文은 찾아볼 수 없다.⁹⁾ 그리고 前者는 에머슨의 「LOVE」(「戀愛」)의 다음 文에서 引用된 것이다.

For persons are love's world, and the coldest philosopher cannot recount the debt of the young soul wandering here in nature to the power of love, without being tempted to unsay, as treasonable to nature, aught derogatory to the social instincts.

왜냐하면 인간사회(人間社会)는 사랑의 세계다. 그리하여 가장 냉담한 철학자라도, 이 자연계(自然界)를 방황하는 젊은 영혼이 사랑의 힘에 입고 있는 은혜를 이야기할 때, 만약 이 사회본능(社会本能)의 가치(価値)를 조금이라도 상처 입히는 것 같은 것을 말하면, 이는 대자연(大自然)에 거스르는 행위이며, 따라서 반드시 이 젊은이의 이야기를 철회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以下 原文은 入江勇起男(이리에 유키오) 氏가 日本語로 翻譯한 것을 参照로 한다.)

透谷는 두 번에 걸쳐서 에머슨의 글을 引用하고 있지만, 그것은 原文과는 相当히 距離가 있다. 그것은 誤訳이나 意識이라고 하기보다도 透谷의 独自の인 見解라고 보는

9) 吉田精一, 『近代文芸評論史・明治篇』, 「浪漫主義の文学論」, 「北村透谷」. p.574

편이 좋을 것 같다. 이것은 透谷가 그 자신이 경험한 사랑을 토대로 하여 독자적인 견해를 追求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바꿔 말하면, 透谷는 에머슨의 글을 읽으면서 거기에다 自己의 見解를 덧붙여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점에서 「透谷에게 있어서 에머슨은 規範적인 것이 아니다」¹⁰⁾라고 하는 北川透(기타카와 도루) 氏의 指摘은 注目할 만하다.

에머슨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는 부분을 제쳐두고라도, 이 평론 속에 에머슨의 「사랑」의 원문에서 原拠를 얻었다고 보여 지는 부분이 대략 10여 곳 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例를 들어보자. 우선 첫머리의 「戀愛는 인생의 비밀을 푸는 열쇠이다」(戀愛は人世の秘鑰なり). 이것의 典拠는 「LOVE」(「戀愛」)의 다음 부분에 있다.

Then he passes from loving them in one to loving them in all, and so is the one beautiful soul only the door through which he enters to the society of all true and pure souls.

사랑이란 어느 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두드러진 모습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나아가서는 만인(萬人)을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혼(美しい魂)은 온갖 眞実하고 청순한 혼(清純な魂)과 사귀게 되는 입구(入口)인 것이다.

이 原文의 「the door」(入口)가 『厭世詩家와 女性』에서는 「비밀을 푸는 열쇠」(秘鑰)로 바뀌어져 있다. 「戀愛」는 「모든 진실하고 순결한 사람들이 사회 속에 들어가는 실마리가 된다」(すべての眞実で純潔な人々の社会の中に入るよすがとなる). 이것은 서로 생각하고 서로 사랑함(相思相愛)으로서 비로소 「사계의 한 분자」(社界の一分子)가 된다고 하는 의미이다. 이것은 『厭世詩家와 女性』에서 말하는 「戀愛」의 役割과 같은 뜻으로 쓰여 지고 있다.

男女既に合して一となりたる暁には、空行く雲にも顔あるが如く、森に鳴く鳥の声にも悉く調子あるが如く。

남녀가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새벽에는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에도 얼굴이 있는 것과 같이, 숲에서 우는 새소리에도 모두 다 音調가 있는 것 같다.

이러한 戀愛의 陶醉境은 「LOVE」(「戀愛」)의 다음 문장에 의한 것이다.

The passion rebuilds the world for the youth. It makes all things alive and significant. Nature grows conscious. Every bird on the boughs of the tree sings now to his heart and soul. The notes are almost articulate. The clouds have faces as he looks on them.

사랑은 청년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지녀왔던 세계관을 바꾸어 버리게 한다. 그것은 만물을 살리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든다. 저절로 의식이 싹튼다. 나뭇가지에 머무는

10) 北川透, 「エマソンとの出会い」, 「現代詩手帖」, 1975年 4月.

작은 새(小鳥)는 바야흐로 젊은이의 가슴과 혼을 향해 노래하고 있다. 그 울음소리는 거의가 의미 있는 말이다. 젊은이(若人)가 구름(雲)을 바라보면 구름은 얼굴(顔)을 가지고 있다.

에머슨의 「LOVE」(「戀愛」)으로부터의 影響關係에 関한 先行研究는 吉田精一氏와 笹淵友一氏(사사부치 도모이치 씨), 이 두 분의 見解로부터 出發하는 傾向이 있다. 吉田精一氏에 의하면 「厭世詩家와 女性」의 前半에서 볼 수 있는 戀愛讚美는 「에머슨의 사상을 그대로 승계한 翻案에 가까운 것」(エマーソンの思想をそのまま承けた翻案に近いものである)이다. 그래서 論者는 두 분의 주장에 論者 나름대로의 見解를 덧붙여서 透谷가 에머슨의 戀愛觀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

우선 에머슨의 「LOVE」(「戀愛」)을 透谷의 戀愛觀과 比較하면서 叙述하고자 한다. 「LOVE」(「戀愛」)에 인용되어 있는 詩를 보면 다음과 같다.

Thou are not gone being gone, where'er thou art, Thou leav'st in him thy watchful eyes, in him thy loving heart.

당신은 그의 곁을 떠나 어디에 있더라도 당신은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의 안에 당신이 응시하는 눈을 남기고 또 그의 안에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남기고 있다.

여기에는 戀愛의 感覺性과 官能性은 止揚되고 오로지 純粹한 精神的 憧憬的 性格이 重視되고 있다. 바로 透谷가 말하는 대로 이 「사랑」은 「플라토닉 러브의 원칙을 연역해서 고상한 사구에서 생겨남을 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에머슨도 透谷와 같이 唯心化 傾向이 顯著하다.

에머슨은 戀愛에도 進歩가 있음을 認定한다. 그에 의하면 戀愛는 自然히 血氣 가득 찬 것으로 聯想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생생한 色彩로 그려내기 위해서는 그리는 사람이 너무 나이를 먹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青春期의 情熱을 과대평가 하지 않으며, 또한 戀愛는 젊은 시절에 시작된다고 말하면서도, 老人에게도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戀愛의 從僕이 되어버린 사람이라면 누구나 늙지 않는다. 왜냐하면 老人이 謳歌하는 사랑은 젊은이들의 사랑과 언뜻 달리 보이겠지만, 그 사랑의 高潔함 그리고 그 사랑에 바치는 정열은 젊은이에게도 뒤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戀愛는 全世界와 大自然의 모든 것을 비추어 빛나게 하는 「일종의 불」(一種の火)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들이 戀愛를 20歲에 30歲에 혹은 80歲에 시작을 하더라도 그것은 問題가 되지 않는다. 笹淵友一氏가 말한 대로 에머슨의 이 老成한 戀愛觀에는 그의 특징인 매우 樂天的인 調和思想이 一貫되게 흐르고 있다.¹¹⁾

에머슨에 의하면 戀人의 얼굴이나 모습에서 문득 엿보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魅力은 조금이라도 그것을 理論的으로 설명하려고 해버리면 그 매력은 破壞되어 버린

11) 笹淵友一의 前掲書, 「第1章 北村透谷」 「第6節 戀愛觀」, p242.

다. 「戀愛」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어떠한 友情이나 愛情과는 전혀 다르며, 이것은 우리들이 근접할 수 없는 또 달리 도달할 수 없는 세계, 즉 「절대적인 미와 우아함」(絶對的な美とゆかしさ)인 것이다. 소위 戀愛는 「지복의 세계」(至福の世界), 「천국에서 내리쬐는 성스런 환희」(天国から降りそそぐ聖なる歡喜)라고 말할 만한 것이다. 透谷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戀愛」 속에 포함된 미」(恋愛の中に含める美)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또 「戀愛」는 「지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상에서 지하로 내려온 신의 사절과 같은 것」(地下のものにはあらざるなり、天上より地下に降りたる神使の如きもの)(『노래염불』을 읽고)이다.

그리고 에머슨은 「사랑이 있으면 자기를 남에게 바치면서도, 그 이상으로 자기를 자기 자신에게 바치고 있다」(愛があれば、おのれを人に捧げながらも、それ以上におのれを自身に捧げている)라고 말한다. 이것은 透谷가 말하는 「戀愛는 일단 나를 희생함과 동시에 나인 『자기』를 비추는 거울이다」(恋愛は一たび我を犠牲にすると同時に我れなる『己れ』を写し出す明鏡なり)라는 뜻과 거의 같이 쓰여 지고 있다. 에머슨은 「사랑」의 문장 속에서 戀愛 中心的인 心理를 볼 수 있는 첫째 조건은 「이 사랑의 정조를 역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희망 속에 나타나는 대로 연구하는 것이다」(この愛の情操を歴史によってではなく、希望の中にそれが現れるがままに研究することである)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戀愛」는 「현재 뿐만이 아니고 일부는 희망에 속하는 것」(現在のみならずして、一分は希望に属する者)이라고 하는 透谷의 意向과 一致하고 있다.

第三: 「厭世詩家와 女性」의 「想世界」와 「実世界」의 原拠

- 「꽃봉오리 같은 시절」(蕾のころ)과 「어른의 세계」(大人の世界)-

透谷는 「厭世詩家와 女性」에서 그의 文学世界를 「想世界」와 「実世界」라는 兩 文学像으로서 설명하고 있다. 「想世界」는 「実世界」에서 살아가는 人間이 志向하고자 하는 理想의 世界이며 希望의 世界이다. 이 둘은 單純히 対立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兩者는 서로 간에 拮抗性的인 關係로서 存立한다. 透谷의 兩 文学像인 「想世界」와 「実世界」의 原拠에 해당되는 부분이 에머슨의 「LOVE」(「戀愛」)에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다.

어른(大人)이 되면 한없이 양심(良心)의 가책(苛責)을 받음으로 해서, 꽃봉오리 같은 시절(蕾のころ) 맛보았던 달콤한 환희(歡喜)로 가득 찬 추억(追憶)을 쓰디쓴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모든 그리운 사람의 이름을 기억 속에 사라져 버리게 한다. 어떤 일이라도 지성(知性)이나 진리(真理)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체험(体験)을 통해서 바라보면 모든 것은 쓰다(酸). 상세한 기억은 슬프다. 그러나 계획 그 자체는 훌륭하고 고귀(高貴)하다. 現實世界—때(時)와 장소(所)에 제약받는 이 고통스러

은 왕국(王国)에는 걱정(心配), 고뇌(なやみ), 및 공포(恐怖)가 살아 숨 쉬고 있다. 사상(思想)에는 영원한 희열(永遠の喜悅), 환희의 장미가 피어나 있다. 뮤즈의 신들은 모두 그 주위에서 노래하고 있다. 하지만 비탄(悲嘆)은 어제 오늘의 국부적(局部的)인 이해(利害)에 집착한다.

「꽃봉오리 같은 시절」(蕾のころ)이 「어른」(大人)의 세계와 자주 對比되어지고 있다. 「꽃봉오리 같은 시절」은 「少年」의 세계 「어린 시절」(幼いころ)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이 시절은 歡喜를 만끽할 수 있는 追憶이 있고, 어떠한 일도 知性 혹은 真理의 観点에서 바라보려고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다음과 같다.

最も幼いころのいんぎんと親切の表明は自然界の示す最も魅力できな絵となる。それは粗野で質朴な人の中に見られる礼節と優雅さの曙光である。

아주 어린 시절 겸손하고 예의바르게 보여준 친절은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魅力적인 그림이 된다. 그것은 조잡하고 소박한 사람들 속에서 볼 수 있는 禮節과 優雅함으로 가득 찬 曙光이다.

이 「어린 시절」(幼いころ)에는 체험을 통해 겪는 「쓴」(酸) 맛은 없고 「아름다운 것」(きれいなもの)만 느껴진다. 체험을 한 뒤 때와 장소에 제약받는 「현실의 세계」(現実の世の中)가 「어른」(大人)의 세계이다. 이것은 透谷가 말하는 「実世界」 그 자체이다. 그곳에는 「걱정」 「고뇌」 및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 「어린 시절」은 한없는 良心의 苛責을 받고 있는 「어른」 세계에 의해서 철저히 否定된다. 그러나 그 속에서 永遠한 喜悅과 歡喜의 꽃을 피우게 하는 思想이야말로 戀愛이다. 뮤즈의 神들은 그 주위에서 戀愛를 謳歌한다. 이것은 바로 「厭世詩家와 女性」에 있어서의 「想世界」와 「実世界」, 그리고 「戀愛」의 문제와 同質인 것이다.

「厭世詩家와 女性」에 있어서 「想世界」의 主体는 「小兒」 「少年」이다. 「小兒」· 「少年」은 「사회의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곧게 자」(社会の 夤緣に 苦しめられず 真直に 伸び)라, 「본래의 想世界에 나서 성장했기 때문에 実世界를 모르는」(本来の 想世界に 生長し、 実世界を 知らざる) 者이다. 즉 「사계의 不조화를 모르」(社界の 不調和を 知らざる)는 「순수한 少年」(純樸なる 少年)의 世界가 「想世界」이다. 「想世界」와 「実世界」는 각각 「천진난만한 세계」(無邪氣の世界)· 「想世界」, 「뜬 세상」(浮世)· 「사마」(娑婆)라고도 말하는데, 두 세계는 서로 싸우고 서로 맞서서 미워하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実世界」는 강대한 세력이다. 이러한 「実世界」에서 살아가는 「詩家」의 삶의 方式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浮世の刺衝に当りたる上は、好しや苦戦搏闘するとも、遂には弓折れ箭尽くるの悲運を招くに至るこそ理の数なれ。

현세에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고 나면, 설령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굽히

지 않고 맞붙어 싸운다. 그러나 아무리 살려고 애쓰더라도 끝내는 활이 부러지고 화살이 다하는 비운을 초래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이치이다

이리하여 「想世界」를 指向하고자 하는 「小兒」·「少年」이 「 뜯세상」에 부딪쳐서 敗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면 当然한 結果이다. 이 때 「想世界の 敗將」은 마음이 꺾이고 지쳐서 무엇인가를 얻어 만족을 구하려 하는데, 이것이 다름 아닌 「戀愛」이다. 즉 「想世界와 実世界와의 전쟁에서 想世界の 牌將으로 하여금 스스로 위안을 삼게 하는 아성」(想世界と実世界との争戦より想世界の敗將をして立籠らしむる牙城となる), 이것이 바로 「戀愛」이다. 바꿔 말하면 「이 戀愛가 있음으로써 고된 実世界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욕망을 일으킨다」(此恋愛あればこそ、実世界に乗入る欲望を惹起するなれ). 결국 「戀愛」의 역할은 「想世界」와 「実世界」를 媒介하는 데에 있다. 또 서로가 대립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속에서의 「戀愛」의 役割 等に 관한 透谷의 見解는 에머슨의 논리와 一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透谷가 말하는 「想世界」와 「実世界」의 문제는 반드시 透谷의 獨創적인 思想만은 아니다. 「想」과 「実」이라고 하는 用語의 援用에 관한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그 원천은 역시 吉田精一氏가 指摘하는 대로 에머슨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단 「想世界の 敗將」을 돕고 만족시키는 牙城은 「戀愛」라고 하는 点에 限해서 透谷의 獨創적인 思想이 들어있다.

第四: 에머슨과 透谷 兩者의 戀愛觀과 結婚觀의 比較

1: 戀愛와 肉情

에머슨은 戀愛를 肉情과 관련지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지상(地上)에서 육체(the body)에 싸여진 인간의 혼(魂 : the soul)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존재하였던 그 본래의 세계를 찾아 이곳저곳을 배회(徘徊)한다. 그래서 神은 魂의 눈앞에 빛나는 젊은이(若者)들을 파견하신다. 그것은 혼이 아름다운 육체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천계의 선과 미」(天界の善と美)를 想起하는 계기로 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자(男)는 이러한 아름다운 女性을 찾아내고, 거기에 다가가 그녀의 모습(姿), 말씨, 태도(態度), 총명(聰明)함에 감탄하고 최고의 환희를 맛보게 된다. 그것은 여성의 모습이 남성에게 진실로 아름다움 속에 숨겨져 있는 實在와 미(美)의 원인을 暗示해주기 때문이다. 이같이 육체(the body)의 美를 매우 칭찬한 에머슨은 다음과 같이 경고(警告)한다. 육체의 찬미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다. 물질 대상(物的對象, material object)과 교섭을 너무 많이 하다보면 혼이 야비(野卑)해지고, 또 자칫 육체에 만족을 두다 보면 그 혼에 돌아오는 것은 비탄(悲嘆)뿐이다. 왜냐하면 육체는 미

(beauty)가 제시하는 약속(the promise)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미(美)가 주는 환상(幻想)이나 암시(暗示)가 지향(指向)하는 바를 혼이 수용(受容)하고, 그리고 혼이 육체를 뛰어넘어 품성(品性)이 지니는 힘을 찬미하기 시작하고, 말할 때나 일할 때도 연인들이 서로 그리워한다면, 그들은 「진실한 미의 궁전」(眞の美の宮殿, the true palace of beauty)에 다다를 수 있다. 그것에 의해서 그들은 비속(卑俗)한 정애(情愛)를 소멸(消滅)하고 「순수하고 거룩하며 정결한 몸」(純粹聖淨の身)이 되고, 이 전보다 더 고귀한 특질을 사랑하고 재빨리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다.

以上으로 에머슨의 肉体讚美는 透谷의 見解와 잘 對比된다. 戀愛와 肉情과의 관계에 관한 兩者의 見解 差異는 兩者가 함께 다루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評書에 잘 나타나 있다. 로미오와 줄리엣 두 사람에게의 있어서 人生의 価値는, 바로 그 두 사람에 있는 것이지 다른 어느 것에도 그 가치를 賦與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두 사람의 目的과 希望은 「혼으로 가득 찬 모습, 바로 그 혼속에 포함되어 있다」(魂に満ちた姿、この姿そのものなる魂の中に含まれている). 여기에 「혼은 완전히 육체를 꾸미고, 그 육체는 완전히 혼을 나타내고 있다」(魂は完全に肉体を装い、肉体は完全に魂を現している).

이와 같이 에머슨은 戀愛를 肉情과 같은 위치에 놓고 있다. 그 반면 「厭世詩家와 女性」과 『노래염불』을 읽고 에서 엿볼 수 있는 透谷의 견해는 그와 다르다. 영국의 浪漫派詩人이며 批評家인 콜릿지(Coleridge :1772 ~1834年)는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관한 주」(シェークスピアの悲劇に関する注)를 집필하여 「로미오와 줄리엣」을 비평하고 있다. 透谷는 『厭世詩家와 女性』에서 콜릿지의 文章을 引用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의 見解를 稱讚하고 있다.

(콜릿지는) 로미오의 戀愛로써 그 자신의 戀愛觀을 대신하고자 한다. 愛婦인 로자린은 그 자신이 고안해낸 임시적인 인물(仮物)이다 라고 (그가) 논하는 것은, 인간의 愛情을 금수(獸)의 境地로 下等視하고 実性を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작가를 나무라는(誠しむる) 데 충분하다.

그리고 透谷는 『노래염불』을 읽고 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何が故にロメオが鬱樹叢中に彷徨したりやを記せず。彼は唯だロメオに自然なる一種の思慕ある事を躰はずに甘んじたり。

(로미오와 줄리엣의 著者)가 무슨 까닭으로 로미오가 울창한 숲 속에서 방황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는 단지 로미오로 하여금 자연스런 일종의 사모하는 마음을 나타내 게 하는 데에 만족하고 있다.

이 作法은 「햄릿」의 저자인 셰익스피어가 햄릿과 오페리아와의 「狂愛」를 그리는

것과 같이, 「戀愛에 대한 극치와 정취를 하나」(戀愛に対する極致と趣を一)로 하는 것이라고 透谷는 칭찬하고 있다.

藤村의 小説 『春』의 「第5」에 가련한 오필리아가 불렀던 노래를 青木(아오키)가 맑은 소리로 부르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그 訳文은 다음과 같은 詩句로 시작한다. 「사랑하는 그대가 어디 계신지 / 난 알 수가 있어요 / 조개관과 짙는 지팡이 / 그리고 신는 신이 그것을 일러 주어요」(いつれを君が恋人と / わきて知るべきすべやある。 / 貝の冠と、つく杖と、 / はける靴とぞしるなる). 이것은 「햄릿」의 제4막 5장에서 연인 햄릿의 손에 자신의 아버지가 죽음을 당한 후 미쳐버린 오필리아가 王妃 앞에서 부르는 노래이다. 이 노래에 들어 있는 一種의 厭世思想에 이끌려 透谷와 藤村을 비롯한 當時의 青年들은 愛唱했던 것 같다.

要컨대 에머슨은 「진실한 미의 궁전」(眞の美の宮殿)에 도달하는 道程 上에 있어서 肉體의 美를 肯定的으로 把握한다. 동시에 육체에만 만족을 두는 것을 警戒하고 있다. 이것은 透谷의 견해와 다르다. 즉 透谷는 에머슨과 같이 戀愛를 肉情과 같은 위치에 두고 있지 않다. 그뿐만이 아니라 透谷의 「戀愛」는 더 나아가 肉情的이며 感覺的 要素를 徹底하게 排斥하고 순수한 精神的 憧憬으로까지 昇華해 간다. 「천지에 사랑할 만한 것은 많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애호할 만한 것은 처녀의 순결이다」(天地愛好すべき者多し、而して尤も愛好すべきは処女の純潔かな). 이것은 評論 「処女の純潔を論ず」(처녀의 순결을 논하다 1892年 10月)의 冒頭이다. 肉情을 排擊하고 高貴한 精神的인 사랑을 渴求하는 透谷의 戀愛觀을 잘 反映하고 있다.

2 : 結婚觀

다음으로 에머슨의 結婚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에머슨에 依하면 夫婦生活을 통해서 서로 상대의 特性이나 欠点 분명히 알려주고, 그것을 지적하고 矯正해서 고치기 위한 가능한 한 모든 援助와 위로(慰め)를 해준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생활을 통해서 최고의美와 神의 사랑(愛)과 知識을 얻게 된다. 그리고 결혼은 모든 自然界 原子에 새로운 價值를 부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宇宙全体를 묶는 人연의 그물(縁の網)이 되는 모든 실(糸)은 황금빛(黄金の光)으로 바뀌고, 영혼(魂)은 새롭고 보다 감미로운 물에 잠긴다. 이와 같이 결혼이란 戀愛를 完成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境地이다.

덧붙여서 에머슨은 人間性的 希望이나 愛情을 말라버리게 하는 「肉慾主義」 sensualism를 警戒하고 있다. 그것은 「肉慾主義」가 젊은 사람들에게 결혼이란 아내가 집안 일만 돌보는 것에 지나지 않고, 여자의 일생에 다른 목적은 없다 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에머슨은 戀愛의 必然的인 結果로서 幸福한 結婚生活을 営爲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바로 이 점이 透谷의 경우와 전혀 다르다. 透谷는 다음과 같이 戀愛와 結婚의 不一致를 이야기하고 있다.

始に過重なる希望を以て入りたる婚姻は、後に比較的の失望を招かしめ、慘として夫婦相對するが如き事起るなり。

처음부터 과중한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혼인은, 나중에 상당한 실망을 초래하게 되어 부부가 서로 비참하게 대하게 되는 일이 생겨난다.

에머슨은 에세이 「LOVE」(「戀愛」)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戀愛를 거쳐 「일종의 원만한 이해」(一種の円満な理解) a thorough good understanding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결혼」(眞の結婚) the real marriage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남녀는 「신전에 사는 천사」(この神殿に住む天使) the angels that inhabit this temple라고 불려지는 「肉体」에 의해 맺어지고, 나아가서는 狂熱적인 戀愛에 빠져 결혼한다. 그러나 예전에는 불같이 뜨거웠던 서로가 존경하는 마음도, 아름다운 얼굴도, 그 매력적이던 움직임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로의 가슴에서 식어가고 정열도 잃어버리게 된다. 예전에는 잠시도 상대를 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상대가 곁에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게 된다.

결국 두 사람은 「危機」the crisis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일종의 원만한 이해」로써 이 「危機」를 이겨낸다. 지나간 結婚生活에 있어서 이 「危機」는 「어릴 때」(子供)부터 이미 預言되어져 있었다. 두 사람은 「일종의 원만한 이해」로 毎年 知性と 心情을 淨化해 간다. 그 결과 처음부터 예상되고 준비되고, 게다가 완전히 의식하고 있지 않았던 「진정한 결혼」에 두 사람은 도달하게 된다.

以上에서 에머슨의 幸福한 結婚觀이 透谷의 不幸한 結婚觀과 相反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厭世詩家와 女性」에도 에머슨이 말하는 結婚生活의 「危機」와 거의 同質의 「危機」는 존재한다. 「戀愛」할 때는 想像도 하지 못했던 여성에 대한 輕蔑, 수동적인 女性觀, 結婚生活에 대한 絶望感 등이 이 「危機」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厭世詩家」는 이 「危機」를 전혀 예상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厭世詩家」는 원래 얽히고 얽힌 社會생활(社會の夤緣)에서도 전혀 고생을 모르고 티 없이 자란, 즉 애초부터 「想世界」에서 生長한 「少年」·「小兒」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계」(社界)의 不調子를 모르고 자란 「少年」은 「厭世詩家」가 된 뒤에도, 「세상」(世)을 타하기에 앞서 「자신을 미워」(己れを厭ふ)하고 「자신을 욕」(己れを罵る)하여 社會에 등을 돌리는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厭世詩家」가 結婚生活에서 招來되는 「危機」를 予想하고 있지 않은 것은 當然한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厭世詩家」에게는 이 「危機」를 이겨내기 위한 「일종의 원만한 이해」라는 것도 없다. 그 때문에 에머슨이 말하는 「진정한 결혼」에 도달하지 못하고 「厭世」의 奈落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結論: 에머슨의 「樂天主義」의 戀愛觀과 透谷의 「厭世主義」의 戀愛觀

以上에서 에머슨의 「LOVE」(「戀愛」)를透谷의 戀愛觀과 비교함으로써透谷가 어떤 식으로 에머슨의 「사랑」을 受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두 사람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사람은 모두 戀愛를 讚美하는 共通點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에머슨은 戀愛를 肉情과 같은 위치에 두고 있는 반면,透谷는 肉情을 철저히 排擊한다. 둘째,透谷와는 다르게 에머슨의 結婚은 戀愛의 完成이다. 에머슨이 지향한 것은 人間의 靈魂이 神과 融合하는 것으로 狂熱的인 사랑은 「원만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결혼」으로 普遍化되는 것이다. 에머슨은 「시인」(the poet)에게 있어서 戀愛는 진정한 개방이 아니라, 一時的인 自由를 얻기 위한 「준기계적인 대용품」(準機械的代用品) quasi-mechanical substitutes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인간의 遠心力 傾向이란 인간이 自由로운 空間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원심력 경향을 돕는 手段이 戀愛이다. (Love is auxiliary to the centrifugal tendency of a man, to his passage out into free space).

한편透谷의 「戀愛」는 일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한 「준기계적인 대용품」이 아니라 그것은 「자유 의 정신」(自由の精神), 「타계의 정신」(他界の精神)과 통하는 것이다. 셋째, 「필연적으로 因果의 法則을 따르는 세계를 말하는」(必然的で因果の法則にかなう世界を語る) 予言者로서의 役割 (the poet is a beholder of ideas and an utterer of the necessary and causal)을 詩人에게서 찾으려 하는 점에 있어서 에머슨과透谷는 상당히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笹淵友一 氏의 지적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獨立戰爭 以後 美國의 國家精神이 한창 昂揚期에 이르렀을 때 그 속에서 成長한 에머슨과, 明治維新 以後 近代國家 成立期의 日本에서 青年期를 맞은透谷 사이에는 共通點이 있다. 그것이透谷가 에머슨의 先驗的 戀愛觀에 共感한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¹²⁾透谷가 「厭世詩家와 女性」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에머슨의 「LOVE」(「戀愛」)에 內包되어져 있는 觀點이다. 그러나 거기에는透谷의 獨自의인 전개가 보인다.透谷는 에머슨의 「사랑」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덧붙여 언급했다. 말하자면 에머슨의 「樂天主義」의인 戀愛觀에 對比되는 「厭世主義」의인 戀愛觀을 自己自身の 問題와 關連시키면서 전개시키고 있다.

透谷는 평서 「에머슨」의 「第6 그의 樂天主義」에서 에머슨의 「樂天主義」가 어떻게

12) 笹淵友一의 前掲書, p245.

해서 生成되었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自身의 見解를 말하고 있다.

에머슨의 樂天主義는 그의 교리에서 중심(敎理の中心)이 되는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말하고 있다. 그의 자연교(自然敎)를 연구한 뒤, 그의 樂天主義를 공부하는 것은 지당한 순서일 것이다.

에머슨의 樂天主義는 그의 고유한 성(固有の性)이라고 할 수 있다. 괴테와 같이 많은 상처(疵瑕)를 입으면서도 어둡고 큰 계곡(幽暗なる大谷)을 지나 도달한 것과는 다르다. 에머슨의 樂天主義는 그의 8대 선조(先祖)가 그의 피 속에 새긴(印錮)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다. 거기에 그의 생활(生活), 그의 주변(周邊), 그의 재산(財産), 그의 지위(地位) 등이 樂天主義라는 결과를 낳았다. 에머슨에게 있어서 樂天主義는 그가 손수 취한 것이 아니라, 하늘(天)이 그를 통하여 진귀한 복음(稀有なる福音)을 인류(人類)에게 전하려고 한 것일 뿐이다.

透谷는 에머슨의 「樂天主義」를 에머슨 「敎理의 中心」이라 看做한다. 또한 에머슨의 「樂天主義」가 「그의 생활, 그의 주변, 그의 재산, 그의 지위」 등의 모든 個人的, 社会的 環境에 起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透谷가 에머슨으로부터 感化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兩者의 戀愛觀에는 많은 差異点이 있다. 그것은 주로 兩者를 둘러싸고 있는 個人的, 社会的 環境의 差異에 根拠했기 때문이다.

1. 結婚生活의 生活苦에서 비롯된 透谷의 「厭世主義」의 戀愛觀

余裕 있는 生涯를 보냈던 에머슨에 비해서 透谷는 너무나도 힘든 生涯를 보냈다. 自由民權運動에서 挫折하고 또한 美那子와의 結婚生活에서도 救援받지 못했다. 여기에 透谷가 「厭世主義」의 立場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根本的인 理由가 있다. 結局 透谷의 결혼관이 에머슨의 그것과 正반대의 결과에 다다른 主 原因도 透谷의 結婚生活과 깊은 관계가 있다. 當時의 結婚生活을 背景으로 한 그의 戀愛觀을 생각하면 상당히 興味가 깊다.

巖本善治는 「滿洲からの通信」(만주로부터 온 통신)(「明治文学研究」1934年 4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透谷が私に語つた言葉で永久忘れぬ印象を私に残したのは左の一句です / 厭世といふものは家庭の平和の破れた時でなくては起りません.

透谷가 나에게 한 말 중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인상을 준 것은 다음의 한 구절입니다 / 厭世라는 것은 가정의 평화가 깨어졌을 때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습니다.¹³⁾

13) 巖本善治, 「明治文学研究」, 「滿洲からの通信」, 1934년 4월, 『北村透谷』日本文学研究資料叢書, 有精堂

이 글에 따르면 「戀愛」의 「宣言」(マニフェスト)과 「葬送曲」이라는 「厭世詩家와 女性」에 있어서 「戀愛」가 가지는 根本적인 矛盾. 이것을 提示하는 것도 원만하지 못한 透谷의 결혼생활에서 비롯된 「厭世」觀 때문이다. 1893年 8月 下旬 透谷가 아내인 美那子에게 쓴 書簡을 보면 다음과 같다.

詩人은 面(面)을 쓰고 道(道)를 이야기하는 伝道師가 아니다. 슬픔(悲しき)을 기쁨(喜び)으로 꾸며서 世(世)을 속이는 숨은 隠君子(隱君子)도 아니다. 철두철미하게 世(社界)의 實勢(実勢)를 파악하고, 그 기세가 어긋나 있음(不調子)을 간파(看破)하여 진리(真理)에 비추어 나아간다. …(중략)… 나의 아내인 당신은 무엇이든 늦고 大道(大道)를 간파하는 것도 늦다. 詩人의 아내가 어찌 幸福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獨身 生活者에게는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결혼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통은 여전히 그 곁을 떠나지를 않는다. Celibacy has no pleasure, but marriage has no less pain. 이것은 古今의 名言(名言)을 기억하시죠.

이 서간은 「厭世詩家와 女性」보다도 約 1年 半 뒤에 쓰인 것이다. 이 해 7月 下旬 透谷는 平田 禿吉(히라타 히데키치), 戸川 秋骨(도가와 슈코쓰) 등과 함께 関西에서 돌아온 藤村을 東海道 鈴川(도가이도 레이가와)에서 맞이하여 다 같이 箱根 芦(하코네 아시코) 湖水에 갔다. 透谷만이 일단 帰京했다가 다시 東北地方으로 伝道旅行을 떠났다. 이 書簡은 거의 한 달이나 집을 비운 남편을 타하는 아내인 美那子로부터 온 편지를 읽고서 는 透谷가 激昂하여 쓴 答狀이다. 오늘날 우리는 透谷가 쓴 답장을 보고 美那子로부터 온 편지의 대략의 内容을 想像할 수 있을 뿐 그 全文은 알 수 없다.

이 편지에 의하면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말하자면 「세상의 실세를 파악」(社界の實勢を觀)하려고도 하지 않는 透谷의 行為에 대해서 美那子는 不滿을 품고 있다. 이에 反해서 透谷는 한층 더 격렬하게 美那子의 背後에 있는 物質世界, 現實世界, 크리스트敎에서 말하는 소위 「이 세상」(この世の世界)의 原理와 対決하고 있다.¹⁴⁾ 이 서간의 内容에 관해 先行 研究者가 지적한 대로 「厭世詩家와 女性」의 문제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想世界」를 志向하는 「厭世詩家」가 「實世界」와 衝突하여 「세상의 실세를 파악하고, 그 기세가 어긋나 있음을 간파하여 진리에 비추어 나아간다」(社界の實勢を觀、不調子を看做し、真理をかざして進む)는 것이다. 또한 詩人의 아내가 不幸하다는 것, 그리고 결혼생활의 絶望感 등을 말하는 書簡의 内容이 「厭世詩家와 女性」의 結婚觀과 같다고 하는 점이다.

透谷는 같은 書簡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남편은 가난해서야 비로소 아내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을, 나는 가난해서야 비로소 아내로부터 원망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夫貧すれば初めて妻の助ありときくものを、われは貧して初めて妻の怨言不足を聞く).

所在에서 間接 引用했음)

14) 平岡敏夫, 『北村透谷研究第三』, 「透谷における手紙の意味」, 1982年. p93

父母의 反對를 무릅쓰고 성난 波濤와 같은 情熱로서 戀愛를 하고, 그리고 結婚生活에 突入하게 된 透谷와 美那子. 이 두 夫婦는 結婚後 어쩔 수 없이 經濟的 生活苦로 허덕이게 된다. 戀愛와 結婚의 落差는 生活苦로부터 비롯된 龜裂에서 생겼다. 이 서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그 落差를 뼈저리게 體驗한 者의 絶叫로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기보다는 사랑을 받기 위해 사랑하는 경우가 많다」(女性は感情の動物なれば、愛するよりも、愛せらるるが故に愛すること多きなり). 이러한 「厭世詩家와 女性」에서 엿볼 수 있는 女性에 대한 輕視思想도 透谷가 結婚生活過程에서 겪었던 生活苦에서 起因한 否定的 意識에서 생겨난 것이다. 端的으로 말해 「厭世詩家와 女性」에 보이는 女性觀은 女性이 男性에 대해 受動的으로만 愛情을 표현한다고 하는 매우 消極的인 것이다. 이것은 結婚前의 戀人인 美那子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戀愛와 結婚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쓴 「楚囚之詩」(초수의 시)에서 보이는 肯定的이고 밝은 女性觀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들 편지와 「楚囚之詩」에는 新鮮한 사랑의 詩句가 넘치고 있다. 예를 들면 1887年 8月 18日 美那子에게 쓴 書簡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貴嬢は常に生のハツピイなるを祈りたまふ我親友なりかし、然らば則ち生のミザリイを察して心の苦を慰むる術もかなあらば、是れを指示してくれたまふ可き道徳上の義務をもちたまふ御身なるべし).

당신은 항상 저의 행복을 빌어주시는 친구이십니다. 그리하여 저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마음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는 도량으로써 저를 지시해 줄 수 있는, 도덕상의 의무를 가지 신 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楚囚之詩」에는 다음과 같이 노래 불리어져 있다. 「나를 울리고, 또 나를 기쁘게 하지만, 그대의 노래는 나를 불행에서 건져주지 못 한다」(余を泣かしめ、又た笑まむれど、卿の歌は、余の不幸を救ひ得じ)(第15)라고 되어 있다. 이 둘을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보면 피꼬리(鶯)인 「그대」(卿)의 存在는 「나」(余)에게 있어서 能動的인 것이고 그만큼 소중한 존재로 認識되어져 있다. 거기에는 透谷가 크리스트敎에 入信한 일과, 文學者의 길을 걷는데 큰 役割을 한 美那子의 能動的인 姿勢가 담겨져 있다. 게다가 透谷는 자신을 수렁에서 구해 준 美那子에게 感謝하는 마음도 들어있다.

われ思ふ、きみ《半身》既に婚して夫に合すれど、半身夫の物にして、半身然らず、君が常に苦しむ所、夫の事業の爲ならずして他にあり、夫の沮喪したる勇氣を挽回せんとはあらずして、夫のわれに忠ならん事を望むに過たり(同書簡)。

나는 생각한다. 당신의 몸 반쪽은 이미 혼인하여 남편의 몸과 합쳐짐으로써 그 반쪽은 남편의 것이 되었지만, 다른 반쪽은 그렇지 않다. 당신이 항상 괴로워하는 바, 이것은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고 달리 그 이유가 있다. 기력을 잃어버린 남편에게 용기를 심어주지 않고 있다. 지금부터는 다만 남편인 나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바랄 뿐이다.

이 부분은 透谷의 小説 「我牢獄」(나의 감옥 1892年 6月)의 다음의 文을 聯想시켜 준다.

この半裁したる二靈魂が合して一になるにあらざれば彼女も我も円成せる靈魂を有するとは言い難かるべし.

이 반쪽으로 나누어진 두 영혼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녀도 나도 원성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透谷는 男女의 存在를 하나의 完成된 것으로 보지 않고, 반쪽으로 나누어진(半裁)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둘이 하나로 합쳐질 때 비로소 「원성한 영혼」(円成なる靈魂)으로 승화된다고 본다. 이어서 아내인 美那子에게 보낸 같은 書簡에는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다.

昔へより詩人の如き、大改革者の如き、多くは妻と折り合はぬなり、多くは妻と離るるなり、ミルトンを捨て去りし妻あり、カアライルをして其自伝中、常に憤懣して妻の不徳を挙げたる妻あり、而して彼等の妻はなほ夫の犠牲となりしものなり。

옛날부터 시인이나 대개혁자의 대다수는 아내와 맞지 않아 아내와 헤어지고 만다. 밀턴(Milton)을 버리고 떠난 아내가 있고, 칼라일(Carlyle)로 하여금 그의 자전 중에서 항상 울분을 터트리며 아내의 부덕을 이야기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아내는 더욱 더 남편의 희생이 되었다.

※ Milton John(1608~1674) : 英国詩人 『失樂園』의 著者

※ Carlyle Thomas(1795~1881) : 英国批評家

여기에 透谷와 美那子와의 살아가는 방식(生き方)의 차이가 克明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厭世詩家」와 여성이 가지는 삶의 방식의 차이와도 통한다. 「어제는 귀족의 딸이 오늘은 가난한 시인의 아내」(昨日の公家の娘、今ま貧詩人の妻、同書簡). 이러한 美那子が 볼 때는 경제적인 문제가 생활의 최우선이다. 그러므로 「돈 생길 일이 적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늦고, 있을 곳의 폭이 좁은 것을 탓하」(金得ること少なく、世に出づることの晩く、居る所の幅狭まきを責むる、同書簡)는 美那子. 이러한 아내인 美那子が 내뱉은 원망스런 말(怨言)은 당시의 가정생활이 얼마나 궁핍한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透谷는 가난한 생활 때문에 설령 「내가 이대로 아파서 타인의 웃음거리가 되어도 탓하지 않는다」(われこのままに病みくちて、人の笑はれものとならんとも恨みじ)라는 긍지(矜持)로 자신을 지탱하고 있다. 이것은 「厭世詩家와 女性」에서 말하는 「시인은 완고하여 세상의 길을 확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詩人は頑物なり、世路を闊歩することを好まない)라는 것에 해당된다. 두 사람의 삶의 방식은 타협과는 거리가 먼 이른바 「부조화」(不調子) inconsistent (同書簡)인 셈이다. 이 「부조화」가 「세상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사상」(人世を厭離するの思想), 즉 「厭世思想」을 増幅시켜 결국에는 結婚生活を 崩壊시

킨다. 바꿔 말하면 두 사람의 삶의 방식이 「부조화」를 이룸으로써 結婚生活의 絶望感을 낳은 것이다. 「아아 불행한 것은 여성인가」(嗚呼不幸なるは女性かな)라는 語句를 「厭世詩家와 女性」의 내용에 덧붙여 생각해 보면, 透谷의 心情에는 자신을 위해 희생한 아내 美那子를 가엾게 여기며 同情하는 마음이 끓어오르고 있었을 것이다.

以上과 같이 透谷은 에머슨의 「사랑」(LOVE)을 原拋로 해서 「厭世詩家와 女性」을 집필하였지만 그 方向은 完全히 달랐다. 즉 에머슨의 幸福한 結婚觀이 透谷의 不幸한 結婚觀과 相反的인 關係로 因해서 에머슨 쪽이 「樂天主義」的 戀愛觀, 그 反面 透谷은 「厭世主義」的 戀愛觀을 제각기 자기 자신의 問題와 聯関지어면서 展開시켰다. 따라서 이 評論의 題名과 主人公이 왜 「厭世詩家」인가하는 것에 透谷의 意圖가 있다고 여겨진다.

2. 透谷의 타고난 天性으로 因한 「厭世詩家」

透谷의 「厭世」는 그의 타고난 天分과도 관계가 있다. 恋人인 美那子(結婚前의 이름은 石坂ミナ혹은 美那子임)에게 보낸 편지(1887年 8月 18日)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1890年 8月 9日)에 透谷은 자신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과민하고 악질적인 신경」(神經の過敏な悪質)·「惡習慣」, 오만하고 굽힐 줄 모르는 성격(「傲慢不羈」)이다. 이러한 성격은 정확히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半半씩 물려받은 것이라고 한다. 그는 幼少年時節 父母가 東京으로 移住하는 바람에 祖父의 嚴格한 教育을 받으며 成長했다. 그는 이에 대해 불평이 심했으며 항상 憂鬱한 나날을 보냈다. 그는 이를 다음과 같이 回想하고 있다.

生は最も甚しきパッションネイトの人物となり、又た極めて涙もろく考へつめてはなかなかいやすべくもあらぬこまりもの

나는 성질이 몹시 걱정적이며, 아주 눈물에 약하며 무엇인가를 골똘히 깊이 생각하고 서는 좀처럼 마음을 풀 줄 모르는 외골통 같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感受性이 鋭敏한 性情은 過敏한 神經이 惡化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그 후 氣鬱症(憂鬱症)과 腦病을 앓는 原因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그의 性情은 그가 厭世的 傾向을 띠게 하는 母體가 되었다. 즉 이 厭世的 傾向은 後天的인 것만이 아니라 幼少年時節부터 싹튼 것이었다. 더욱이 이 「과민하고 악질적인 신경」(神經の過敏なる悪質)은 芸術的 天性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어머니로부터 흐르고 있는 이러한 素質이 文學者 透谷을 낳았다고 보여 진다.

『만프레드』 및 『파우스트』라고 하는 短篇 есе이가 있다. 이것은 透谷의 死後 藤村이 発見하여 그의 「亡友反古帖」(망우반고첩) 속에 紹介한 글이다. 勝本清一郎氏의 『

『透谷全集』解題에 의하면 執筆 時期는 1890~1891年頃이 된다. 여기에서 透谷는 바이런(Byron: 1788~1824年 英国 詩人. Manfred의 作家)과 괴테(Goethe: 1749~1832年 独逸 詩人 作家)를 「厭世家」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厭世」를 比較하여 論하고 있다. 그에 依하면 바이런의 厭世觀이 괴테의 厭世觀보다 훨씬 더 根本的인 것이다. 그 이유는 바이런의 「厭世」는 母親의 胎中에 있을 때부터 形成된 것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透谷가 바이런의 「厭世」에 가장 親密感을 품고 있는 것은 바이런의 어린 시절의 家族 環境, 그리고 母親으로부터 이어받은 性格 등이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과 상당히 일치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藤村도 「透谷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마치 바이런과 그 어머니와의 관계와 같고, 透谷君의 아주 神經質的인 部分은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것이다」¹⁵⁾ 라고 하고 있다.

評論 「에머슨」의 「第6章 그의 樂天主義」에서 透谷는 「厭世」와 「樂天」을 對比하면서 論하고 있다. 이것에 依하면 「智識」은 「슬픔의 本원」(悲の本源)이다. 「智識」에 들어가는 것은 쉬워도 「智識」을 나오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智識」은 甘酒와 같은 것이며, 이것을 마시는 사람은 자신의 存在를 쉽게 잊어버리며, 醉한 後에야 이윽고 「苦惱」를 앓게 된다. 이 「苦惱」에 쫓기어 마음의 肺와 肝으로부터 넘쳐 나오는 一種의 呼吸, 이것을 「厭世思想」이라고 한다. 한편 이 「苦惱」를 벗어나 스스로의 本性을 명확히 하는 것, 이것을 「樂天思想」이라고 부른다. 바이런, 괴테, 西行(사이교)는 「厭世家」이다. 反面 에머슨은 「樂天家」이다.

以上の 文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透谷의 「厭世思想」의 生成에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갖고 태어난 天性和 密接한 關係가 있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透谷는 幼少年時節을 거치면서 게다가 不幸한 結婚生活을 營爲하면서 그의 厭世思想은 더욱더 增幅되어 갔다. 이것이 곧 「에머슨」의 「樂天主義」的 戀愛觀을 透谷가 「厭世主義」的 戀愛觀으로 受容한 根本 理由 中の 하나라고 보아진다.

向後 透谷의 「厭世思想」에 관해서는 더욱더 살펴 볼 여지가 많다. 이것은 다른 機會에 새로운 觀點을 가지고 再 挑戰 해보고 싶다.

* 北村透谷의 本文 引用은 勝本清一郎氏가 作製한 『北村透谷全集』(岩波書店)에 依함.

* 에머슨의 「LOVE」(「戀愛」)을, 吉田精一氏는 「戀愛論」이라 말하고 笹淵友一氏는 「愛情論」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以下 에머슨의 訳文引用은 入江勇起男(이리에 유키오)氏의 訳著 『에머슨선집2』(日本教文社) 「愛」에 依한 것이다. 다시 말해 論者는 入江勇起男氏가 사용한 「LOVE」(「戀愛」)을 기준으로 하여 本稿를 展開하고 있다. 또한 에머슨의 「LOVE」(「戀愛」)의 原文引用은 『The Best Of Ralph Waldo Emerson』, Edited, with introduction, by Gordons. Height, associate professor of English, Yale University-에 依한 것이다.

15) 島崎藤村 「北村透谷の短き一生」

【参考文献】

- 吉本隆明, 『吉本隆明全著作集5』, 「日本近代詩の原流」. p81
平岡敏夫(1967), 『北村透谷研究』, 「我牢獄」, 有精堂. p170
平岡敏夫(1971), 『続北村透谷研究』, 「透谷その『戀愛』の行方」, 有精堂. p119
平岡敏夫(1982), 『北村透谷研究第三』, 「透谷における手紙の意味」, 有精堂.
笹淵友一(1950), 『文学界とその時代 上』, 「北村透谷」, 福音書店. p242, p245
島崎藤村(1919). 「桜の実の熟する時」
島崎藤村, 「北村透谷の短き一生」
木下尚江(1934), 「福沢諭吉と北村透谷－思想上の二大恩人」, 「明治文学研究」
「翻訳語成立事情」(1982), 岩波新書
巖本善治(1890). 「女学雑誌」
吉田精一(1975), 『近代文芸評論史・明治篇』, 「浪漫主義の文学論」, 至文堂. p574
北川透(1975), 「エマソンとの出会い」, 「現代詩手帖」
巖本善治(1934). 『明治文学研究』. 「満洲からの通信」
家永三郎(1949), 『北村透谷における近代市民精神』, 「人間」

要 旨

本考は日本の明治作家、北村透谷の評論「厭世詩家と女性」(明治25年)に関する研究である。そのポイントはエマソンの恋愛観を透谷がどのように受け止めているかを調べるところにある。

「恋愛は人世の秘鑰なり。恋愛ありて後人世あり、恋愛を描き去りたらむには人生何の色味かあらむ」。この評論の冒頭が示す恋愛至上主義の宣言は島崎藤村、木下尚江らの同時代の青年達に大きな衝撃を与えた。

男尊女卑の思想が滲透していた明治時代に男女平等あるいは女性を恋愛の相手として考えている。言わば、女権伸張に力を注いだ透谷の文学活動はエマソンの恋愛観に感化されたところが多い。以下、両者の恋愛観を比較検討してその主眼点をまとめてみよう。

一つ、「想世界と実世界との争戦より想世界の敗将をして立籠らしむる牙城となる」ものが「恋愛」である。それで、「恋愛」の役割は「想世界」と「実世界」を媒介するところにある。このような透谷の両文学像である「想世界」と「実世界」の原拠に相応しいものがエマソンの「LOVE(恋愛)」に見られる。それは「蕾のころ」は「大人の 世界」である。従って、透谷の言う「想世界」と「実世界」の問題は、かならずしも透谷のオリジナリティではないと思われる。

二つ、透谷、エマソン、両者は共に恋愛を賛美しながらもそれぞれの恋愛観への見方は大きく違う。透谷の恋愛観は「厭世主義」的である。これに比べてエマソンの恋愛観は「楽天主義」的である。このような両者の相異点には両者の結婚観に関わりあっている。すなわち、透谷の結婚生活が不幸なものであった。その反面エマソンの結婚生活は幸福なものであった。透谷の言う「厭世詩家」にはこの結婚生活からもたらされた「危機」を乗り越えるための「一種の円満な理解」というものもない。それ故にエマソンの言う「真の結婚」に到達せず、「厭世」のどん底に陥ってしまう。そこに「厭世詩家」が女性を愛せざるを得ない背景がある。

キーワード：北村透谷、「想世界」、「実世界」、「厭世詩家」、エマソン、
「蕾のころ」、「大人の 世界」

투 고 : 2011. 8. 31
1차 심사 : 2011. 9. 10
2차 심사 : 2011. 10. 1